

##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2. 6. 21.(화) 06:00 ~ 23:00
- 상담건수<sup>1)</sup>: 863건

## II. 주요의견 내용

### ○ 방송 호평(2명)

-프로그램명 : 「우리말 겨루기」

-방송일시 : 2022. 6. 20.(월) 1TV (19:40-20:30)

우리말을 퀴즈로 풀어보는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월요일마다 부모님과 함께 시청한다. 올바른 우리말 표현을 익힐 수 있는 동시에 재미도 있어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진행자의 차분하고 편안한 진행도 집중력을 높인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통해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주기 바란다.

### ○ 출연자 섭외 제언(6명)

-프로그램명 : 「가요무대」 '6.25 72주년'

-방송일시 : 2022. 6. 20.(월) 1TV (22:00-22:55)

6.25의 의미를 떠올리며 그날의 흔적이 담긴 가요를 감상했다. 뜻깊은 방송이었지만, 그림 대작 논란으로 법정 소송에 휘말렸던 조영남 씨가 출연해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무죄판정을 받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의 대작 사건에 분노했고, 그 외에도 무수한 구설수로 대중에게 이미지가 좋지 않다. 이왕이면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 위주로 섭외해주시기 바란다.

##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가요무대' 외 6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1)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

#### IV. 일일 상담내용

##### 1. 상담실적 : 총 863건

######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sup>2)</sup>	계
455	11	-	-	397	863

######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412	283	12	-	-	156	863

######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105	758	-	863

######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640	2	104	117	863

시청자 의견	문 의
<p><b>【편 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하는 기자들 Q」</li> <li>- 후속 방송 요청</li> </ul> <p><b>【보 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li> <li>- 보도 제언</li> </ul> <p><b>【시사·교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li> <li>- 자막 제언</li> <li>○ 「6시 내고향」</li> <li>- 출연자 호평</li> <li>○ 「우리말 겨루기」</li> <li>- 방송 호평</li> </ul> <p><b>【연예·오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요무대」</li> <li>- 출연자 섭외 제언</li> <li>○ 「백중원 클라쓰」</li> <li>- 자막 제언</li> </ul>	<p><b>【방 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TV 생생정보」</li> <li>- 「꽃무지개물회」 연락처 문의 37건</li> <li>○ 「6시 내고향」</li> <li>- 「물회 문의」 연락처 문의 34건</li> <li>○ 「가요무대」</li> <li>- 「방청 신청」 문의 30건</li> <li>○ 「열린음악회」</li> <li>- 「방청 신청」 문의 18건</li> <li>○ 「내고향스페셜」</li> <li>- 「전통 과자」 연락처 문의 12건</li> </ul> <p><b>【기 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시청」 문의 2건</li> </ul> <p><b>【경 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문의 50건</li> <li>○ 「수신료」 문의 24건</li> <li>○ 「프로그램 구입」 문의 19건</li> <li>○ 「전화교환」 문의 9건</li> <li>○ 「견학」 문의 2건</li> </ul> <p><b>【기 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전 문의사항 포함 117건</li> </ul>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 편 성 ]	
후속 방송 요청	<p>○ 「질문하는 기자들 Q」</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 4. 18.~2022. 3. 6. (일) 1TV 방송. (총 39부작)</li> <li>- 전문가 패널들과 함께 미디어를 비평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사에 대한 비평을 넘어 미디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고민해보는 점이 유익했고 인상적이었다. 해당 프로그램의 종영 이후 한국 저널리즘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고발하는 방송이 없다. 공영방송으로서 언론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시기 바란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 보 도 ]	
보도 제언	<p>○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건강보조식품 판매자, 지병 있는 고객 ‘보호할’ 의무”(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 6. 17.(금) 1TV (12:00-13:00)</li> <li>- 건강보조식품을 먹다가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병원에 가지 말고 제품을 계속 먹으라는 제조사 말을 따랐다가 숨진 50대 여성의 사연을 보도했다. 본인도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고 있기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해당 제조사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다. 그러나 기사에서 제조사를 밝히지 않아 답답하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를 공개해주시기 바란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 시사·교양 ]	
자막 제언	<p>○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국악의 신세계 소리꾼 이윤아’  - 2022. 6. 20.(월) 1TV (13:00-13:50)  - 국악인 이윤아 씨의 예술세계를 들여다보았다. 방송 중반에 이윤아 씨가 ‘대니보이(Danny Boy)’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해당 곡은 1913년에 나온 아일랜드의 포크송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즈피아니스트 김광민 씨의 편곡도 유명한데, 자막에 ‘원곡 김광민’으로 적혀 있었다. 원곡이 아닌 편곡으로 자막을 수정 해주기 바란다.</p>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출연자 호평	<p>○ 「6시 내고향」 ‘뽕뽕이가 간다’  - 2022. 6. 20.(월) 1TV (18:00-19:00)  - 청년회장 손현수 씨가 고향마을의 일손을 돕고, 어르신들의 외로움도 달래 드리는 ‘뽕뽕이가 간다’ 코너를 좋아한다. 이날은 충북 진천으로 가서 무거운 약통을 메고 논에 약을 치는 일부터, 어르신들에게 힘든 일들을 처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늘 밝은 모습으로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손현수 씨를 칭찬하고 싶다. 따뜻한 코너인 만큼 앞으로 더 크게 발전했으면 좋겠다.</p>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방송 호평	<p>○ 「우리말 겨루기」 (2명)  - 2022. 6. 20.(월) 1TV (19:40-20:30)  - 우리말을 퀴즈로 풀어보는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월요일마다 부모님과 함께 시청한다. 올바른 우리말 표현을 익힐 수 있는 동시에 재미도 있어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진행자의 차분하고 편안한 진행도 집중력을 높인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통해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주기 바란다.</p>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 연예·오락 ]	
출연자 섭외 제언	<p>○ 「가요무대」 ‘6.25 72주년’(6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 6. 20.(월) 1TV (22:00-22:55)</li> <li>- 6.25의 의미를 떠올리며 그날의 흔적이 담긴 가요를 감상했다. 뜻깊은 방송이었지만, 그림 대작 논란으로 법정 소송에 휘말렸던 조영남 씨가 출연해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무죄판정을 받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의 대작 사건에 분노했고, 그 외에도 무수한 구설수로 대중에게 이미지가 좋지 않다. 이왕이면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 위주로 섭외해주시기 바란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자막 제언	<p>○ 「백종원 클라쓰」 ‘한우 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 6. 20.(월) 2TV (20:30-21:30)</li> <li>- 백종원 씨의 한국식 한우 육회 비빔밥과 미슐랭 셰프 파브리외의 서양식 육회 타르타르의 맛 대결이 펼쳐졌다. 그런데 한우를 맛보는 과정에서 ‘JMT’이라는 자막이 사용됐다. ‘JMT’은 매우 맛있음을 뜻하는 비속어이자 은어 ‘존맛탱’을 영어 약자로 표현한 신조어다. 남녀노소가 시청하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에서 버젓이 비속어 자막을 사용하는 점이 보기 불편하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